

#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김동혁\*

성경 해석에 있어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무엇이며, 그 공헌과 한계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로서 본 소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단락은 성서학의 맥락 속에서 알레고리를 정의한다. 이때 알레고리와 연결점이 있는 다른 문학 기법들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단락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대표하는 3세기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원리를 논의한다. 셋째 단락은 에스겔이 말한 알레고리의 실례인 ‘부정한 아내 예루살렘의 알레고리(겔 16장)의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고, 넷째 단락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실례로서 에스겔 16장의 알레고리의 일부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해석을 요약한다. 마지막 결론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공헌과 한계를 간략히 제시한다.

## 1. 알레고리란 무엇인가?

‘알레고리’(allegory)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ἀλληγορία)를 영어로 음역한 것인데, 이는 동사 ‘알레고레오’(ἀλληγορέω)에서 파생된 것이다. ‘알레고레오’는 ‘다른 것’(ἄλλος)과 ‘말하다’(ἀγορεύω), 두 단어가 합쳐

---

\* 연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져 이뤄진 것이므로 이 동사의 어원적 의미는 ‘다른 것을 말하다’ 정도가 된다.<sup>1)</sup> 실제로 한 사전은 이 동사를 “실제로 말하는 바와는 다른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말하다”라고 정의한다.<sup>2)</sup> 어떤 용어가 있을 때 그 실제 뜻이 어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알레고리’를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A를 말하면서 실제로는(속으로는) B를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말해지는 것(표면적 의미, 문자적 의미)과 말하고자 하는 것(이면적 의미, 숨겨진 의미)이 다른 경우가 바로 알레고리이다.

기독교인들의 큰 사랑을 받는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2부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1부에선 ‘크리스찬’(Christian)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2부에선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Christiana)가 ‘멸망의 도성’(City of Destruction)을 떠나 ‘하늘의 도성’(Celestial City)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 낸다. 이때 이야기 속 여러 요소들-주인공들, 두 도성, 여정 중에 들르는 장소, 만나는 인물, 헤쳐 나가야 할 역경-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 즉, ‘크리스찬’과 ‘크리스티아나’는 그냥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예컨대, 여정 중 머무르는 ‘허영의 시장’(Vanity Fair)은 그냥 시장이 아니라, 인생의 헛된 욕망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다. 『천로역정』의 디테일 하나 하나는 표면적 의미에 더하여 그보다 깊은 차원의 이면적 의미까지 지닌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만나는 알레고리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 속 문학 기법 중 알레고리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직유, 은유, 우화, 비유, 유형론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들 각각을 알레고리와 대조함으로써 알레고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sup>3)</sup>

1) J. K. Grider, “Allegory,” Merrill C. Tenney, ed., and Moisés Silva, rev., *The Zondervan Encyclopedia of the Bible*, 5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n.p. (kindle edition).

2)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Founded upon the Seventh Edition of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889), s.v. “ἀλληγορέω.”

첫째, 직유(simile)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를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이’, ‘처럼’ 등의 비교사(比較詞)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sup>4)</sup> 예컨대,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호 4:16)는 ‘처럼’이 사용되었으므로 직유의 한 예이다.<sup>5)</sup> 이때 표현하는 대상을 ‘원관념’(영어로는 ‘tenor’)이라고 부르고 비교하는 대상을 ‘보조 관념’(영어로는 ‘vehicle’)이라고 부른다. 위 예에서는 ‘이스라엘’이 원관념이고 ‘고집 센 암송아지’가 보조 관념이 된다. 직유와 비교할 때 알레고리는 비교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둘의 구별은 어렵지 않다.

둘째, 은유(metaphor)는 명시적인 비교사 없이 두 사물을 연결해 공통점을 표현한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시 18:2)는 대표적인 은유이다. 은유는 비교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레고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은유와 알레고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길이가 다르다. 은유는 구나 문장 단위에서 마무리되는 데 반해, 알레고리는 대개 이야기이다. 물론 은유가 문장 단위를 넘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개 은유보다는 비유(parable, 아래를 보라)나 알레고리로 이해된다.<sup>6)</sup> 둘째, 은유에는 표현 대상인 원관념(위 예에서는 ‘여호와’)과 비교 대상인 보조 관념(위 예에서는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등)이 모두 나오지만, 알레고리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조 관념들만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알레고리에서 표면적(문학적) 의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표면적 이야기가 이면적 의미와는 별개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알레고리가 의도하는 원관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라도 보조 관념들이 등장하는

3) 이하의 논의는 Grider, “Allegory”를 주로 참고하였다. 각주를 보라.

4) 히브리어의 경우 대개 𐤀가 쓰인다.

5) 이하 우리말 성경 인용은 『새번역』에서 온 것이다.

6) 이런 점에서 알레고리를 ‘긴 은유(sustained metaphor)’로 부르기도 한다. Grider, “Allegory.”

알레고리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아래 『천로역정』의 한 대목을 보라.

[크리스천(Christian)과 신실(Faithful) 두 주인공은 허망 시장(Vanity Fair)에서 진리를 사려고 했다는 이유로 도시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재판관을 받게 된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크리스천과 신실)은 고발장을 낸 원수들 앞으로 불려 왔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善) 혐오 경’(Lord Hate-good)이었다... ‘시기(Envy)와 ‘미신(Superstition)과 ‘아침(Pickthank)이 증인으로 나섰다...시기가 일어나 말했다...“재판장님, 이 사람(신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자입니다. 이 자는 통치자와 시민, 법과 관습을 무시하고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 사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아침이 증언했다...“이 자는 고결하신 우리의 통치자 바알세룹을 욕하고 그분의 명예로우신 친구 분들-‘옛사람 경’(Lord Old Man), ‘육적 쾌락 경’(Lord Carnal Delight), ‘사치 경’(Lord Luxurious), ‘허영 욕망 경’(Lord Desire of Vain Glory), ‘색욕 경’(Lord Lechery), ‘탐욕 경’(Having Greedy)-과 우리 귀족들 모두를 경멸했습니다.””)

위 알레고리에서 시장으로 표현된 ‘허망’, 상품으로 표현된 ‘진리’, 인물로 등장하는 ‘선 혐오 경’, ‘시기’, ‘미신’, ‘아침’, ‘옛사람 경’, ‘육적 쾌락 경’, ‘사치 경’, ‘허영 욕망 경’, ‘색욕 경’, ‘탐욕 경’ 등은 원관념, 곧 의도된 이면적 의미와는 별개로 훌륭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즉, 위 이야기를 이해할 때 (추상적 개념들과 상관없이) 두 주인공이 ○○ 시장에서 ○○ 물건을 사다가 ○○ 도시 사람들의 참소를 받아 재판관을 받는 이야기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다.

셋째, 우화(fable)는 대개 동물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로,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솝 우화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화와

---

7)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http://www.gutenberg.org/files/131/131-h/131-h.htm> 에서 인용 (2014년 2월 18일 접속).

알레고리의 경계는 모호하다. 예컨대 어떤 이야기가 동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보조 관념의 역할을 해서 원관념을 일관되게 가리킨다면, 그리하여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화인 동시에 알레고리이다. 그라이더(J. K. Grider)는 성경의 대표적인 우화로 요담의 이야기(삿 9:8-15)를 든다.<sup>8)</sup> 요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삿 9:8).

알레고리와 구별해야 할 문학적 기법 중 네 번째는 비유(parable)이다. 예수께서 애용하신 이 기법은 대개는 짧지만 때론 알레고리처럼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유는 전형적으로 교훈을 한 가지만 전달하는 데 반해, 알레고리는 이야기의 디테일들을 통해 여러 숨은 뜻을 가르칠 수 있다.<sup>9)</sup> 또 하나, 신약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는 전형적으로 직유를 사용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마 13:31). 알레고리는 물론 은유적이다.

마지막으로 구별해야 할 문학 기법은 유형론(typology)이다. 유형론은 과거의 사물, 사람, 장소 등이 후대의 것들에 대한 유형(type)이나 예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면적 의미(유형론의 경우, 과거의 대상)와 이면적 의미(유형론의 경우, 후대의 대상)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유형론과 알레고리가 비슷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규정된다. 바로 알레고리의 이면적 의미는 본래적인 데 반해, 유형론의 의미 형성은 후대의 역사 발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유형론의 유명한 예는 신약의 히브리서이다.<sup>10)</sup>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신자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type)이 된다.

위의 논의를 통해 알레고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8) Grider, “Allegory.”

9) Ibid.

10) Ibid.

첫째, 알레고리는 말해지는 것(표면적, 문자적 의미)과 말하고자 하는 것(이면적, 숨겨진 의미)이 함께, 그러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데, 이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러내어 말해지지 않는다. 둘째, 알레고리는 비교사를 쓰지 않는다는 면에서 은유와 같으나, 길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은유보다 길다. 셋째, 알레고리는 유형론과 달리 이면적 의미가 본래적이다. 알레고리의 의미 형성은 후대의 역사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다.<sup>11)</sup>

## 2.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게네스(Origen, 주후 185-253년경)는 그가 활동한 세기의 신학자 중 가장 박식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다고 평가된다.<sup>12)</sup> 오리게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헉사플라』일 것이다. 이 구약 본문의 6개 역본 대조판은 230년경(또는 238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245년경 카이사레아(가이사라)에서 완성되었는데, 왼쪽부터 차례로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그리스 문자 음역, 아퀼라, 삼마쿠스, 칠십인역, 테오도시온을 모아 놓았다. 총 15권에 최소 6500쪽에 이르는 원본은 아마도 7세기 초에 소실되고 지금은 그 일부를 베낀 것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본문 비평학의 보배이다.<sup>13)</sup>

오리게네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 중 두 번째는 아마도 성경 본문의 알레고리적 해석일 것이다. 이 해석 방법론은 우리

---

11) 알레고리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G. Teskey, "Allegory,"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th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37-40을 보라.

12) Origen, *Homilies 1-14 on Ezekiel*, Thomas P. Scheck, trans., Ancient Christian Writers Series 62 (New York: Newman, 2010), 1.

13) David C. Parker, "Hexapla of Origen, The," *ABD* 3, 188-189를 보라.

가 방금 다룬 문학 장르로서의 알레고리에 근거하고 있다.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이 알레고리라고 전제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본문 자체가 꼭 (장르로서의) 알레고리일 필요는 없다.<sup>14)</sup>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이 서로 다른 세 층(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sup>15)</sup> 문자(letter)의 층, 정신(soul)의 층, 영(spirit)의 층이 그것이다. 이 중 둘째 층과 셋째 층이 ‘비유적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해석’과 연결된다. 오리게네스와 다른 고대 해석가들에게 있어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즉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본문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고양된 눈을 통해 분별해 내는 주석적 작업을 가리킨다. 이러한 해석 작업-곧 고대 성경 본문의 문자 이면에 감춰진 기독교적 경륜의 신비를 보는 과정-을 통해 오리게네스와 많은 교부 해석가들은 구약을 효력이 다한 고대의 문서로서가 아니라, 기독교회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sup>16)</sup>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초기 기독교회의 핵심적인 주석 방법론으로서,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간직될 수 있었고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이 드러내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17)</sup>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본문의 문자는 최상의 경우라도 무지한 초신자나 영적 초심자에게 기초 수준의 가르침만을 줄 뿐이다. 신앙이 발전하는 이들이 성경에서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혼적’(정신적)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그 다음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적 의미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성경 읽기 방법론이 말하자면 알레고리적 해석인 것이다. 오리게네스는 성경 전체를 기독교 신앙

14) (장르로서의) 알레고리와 (교부들이 적용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allegorize’(알레고리화하다)로 표현하기도 한다. Teskey, “Allegory,” 37.

15) 이하의 논의는 John J. O’Keefe, “Allegory,” John Anthony McGuckin, ed., *The Westminster Handbook to Origen*, Westminster Handbooks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4), 49-50을 주로 참조하였다.

16) O’Keefe, “Allegory,” 49.

17) Ibid., 50.

의 신비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았다. 성령이 이 신비를 문자로 된 본문 속에 일부러 감추셨는데, 이것은 지식이 부족한 이나 지혜로운 이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문자적 본문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감춰진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다. 알레고리를 통해 오리게네스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확장되는 나라에 대한 계시로 읽을 수 있었다. 오리게네스에게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과정이었던 것이다.<sup>18)</sup>

### 3. ‘부정한 아내 예루살렘’의 알레고리(겔 16장)

에스겔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 속담, 우화, 비유, 애가 등 다채로운 문학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19)</sup> 이들 중에는 알레고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 본문도 적지 않은데, 여기서는 에스겔 16장의 ‘부정한 아내 예루살렘’의 알레고리의 일부(1-8절)를 살펴보려 한다.<sup>20)</sup>

---

18)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의 근거, 원리, 공헌, 한계에 관해서는 채승희, “초기 기독교의 성경 해석(2),” 『성서마당』 22 (2009. 가을), 96-102와 채승희, “초대교부들의 구약성경 이해,” 『구약논단』 13:2 (2007), 67-69, 또한 Origen, *Homilies*에 들어 있는 썸(Thomas P. Scheck)의 “Introduction”(pp. 3-7)을 참조하라.

19) 롱맨(Tremper Longman III)은 에스겔에 사용된 문학 기법의 예로 다음을 나열한다. 장례 애도가(19장; 27장; 28:11-19; 32:2-16), 우화와 알레고리(15장; 16장; 17장; 23장), 환상(1:1-3:15; 8-11장; 37:1-14; 40-48장), 상징 행동(4:1-5:17; 12:1-20; 21:11-29; 24:1-27; 33:21-22; 37:15-28), 역사-신학적 이야기(20장), 법률 관련 언어(legal sayings, 14:1-11; 18장; 22:1-16), 의례 및 제사장 규정(43:18-27; 44:17-31; 45:18-46:12), 소송 형식의 신탁(disputation oracles, 33:1-20) 및 인용, 맹세, 속담, 격언 등. Tremper Longman III,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2), 137. 예언자들이 사용한 수사적 기법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로는 Jan Joosten, “Prophetic Discourse and Popular Rhetoric in the Hebrew Bible,” 『Canon&Culture』 7:2 (2013), 43-60을 참조하라.

20) 이 외에도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17장), 두 사자의 비유(19장), 두 자매의 비유(23장), 배의 비유(27장)가 알레고리(혹은 알레고리에 가까운 비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성경 본문을 간략히 논의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에스겔 16장 1-8절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아래 성경 본문을 보라.

<sup>1</sup> 주님께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sup>2</sup>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 주어라. <sup>3</sup>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sup>4</sup>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 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 주지도 않았다. <sup>5</sup>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sup>6</sup>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sup>7</sup>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별거벗고 있었다.

<sup>8</sup>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겹옷 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새번역)

이것은 알레고리이다. 표면적으로는 한 능력 있는 남자가 불품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키운 후 결혼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주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본문이 정작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문자 이면에 감춰진 상징적인 의미이다.<sup>21)</sup>

16장 전체를 읽어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하다. 마치 의지할 데 없는 갓난아기와 같았던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하나님이 아껴 주시고 보살피 주시고 언약 관계까지 맺으셨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주민이 종교적, 외교적 간통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그것을 배신당한 데서 오는 실망과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데에 이러한 결혼의 알레고리만큼 강력한 수단이 있을까?<sup>22)</sup>

- 
- 21) 그러나 프라이(N. Frye)는 ‘엄격한 의미의 알레고리(allegory proper)와 ‘알레고리적 경향성(allegorical tendencies)을 지닌 내러티브’를 구분한다. 프라이에 따르면, 전자는 알레고리의 비유가 “내러티브 전체에 일관된” 경우만을 가리켜야 한다. 반면 후자에서 알레고리적 요소는 “간헐적이며… 저자의 자유를 따라 쓰였다 쓰이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프라이의 정의에 근거하여 갈람부시(Julie Galambush)는 에스겔 16장을 엄격한 의미의 알레고리가 아닌, 알레고리적 경향성을 지닌 이야기로 이해한다. N. Frye, “Allegory,” Alex Preminge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12-15; Julie Galambush, *Jerusalem in the Book of Ezekiel: The City as Yahweh’s Wif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130 (Atlanta, Ga.: Scholars, 1992), 10-11에서 재인용.
- 22) 예컨대, Katheryn Pfisterer Darr, “The Book of Ezekiel,” *The New Interpreter’s Bible*, 6 (Nashville: Abingdon, 1994), 1225-1242를 참조하라. 또한 비슷한 주제와 모티프를 보여 주는 에스겔 23장의 해석들을 참조하라. ‘여성’ 예루살렘이 잔인한 형벌을 받는 모습이 표현되는 에스겔 16장과 23장은 약자(이 경우는 여성)를 억압하는 해석의 재료로 사용될 위험성이 상존했다. 예컨대, Galambush, *Jerusalem in the Book of Ezekiel*, 91-106, 124-125; Darr, “Ezekiel’s Justifications of God: Teaching Troubling Texts,” *JSOT* 55 (1992), 97-117; Fokkelen van Dijk-Hemmes, “The Metaphorization of Women in Prophetic Speech: An Analysis of Ezekiel 23,” *Vetus Testamentum* 43 (1993), 162-170; Mary E. Shields, “Multiple Exposures: Body Rhetoric and Gender Characterization in Ezekiel 16,”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14 (1998), 5-18을 보라. 우리말로 된 연구로는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53-74(특히 에스겔 16, 23장을 다룬 pp. 57-62, 66-69)를 참조하라.

#### 4.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1-8절 해석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설교 14편이 히에로니무스(Jerome)의 번역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sup>23)</sup> 아래는 이 중 에스겔 16장의 앞부분을 다룬 여섯 번째 설교 “예루살렘의 죄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론의 샘플을 맛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여기서부터 이 단락의 끝까지는 필자의 말이 아닌 오리게네스의 말이다.).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겔 16:3).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만큼 높고 고귀한 도성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바로 이 도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은 이 도성을 타락한 이방 도시라고 선언하신다.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더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지만, 그가 죄를 짓자 아모리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그의 아버지였지만, 그가 죄를 짓자 헷 여자가 그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지만, 그가 죄를 짓자 그의 뿌리는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

예루살렘-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토록 많이 약속되고 기록된 그 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할 수 있다면, 나같이 천한 놈이 죄를 지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가 되겠는가? 만약 내가-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위대하신 스승께 몸을 맡긴 내가-죄를 짓는다면 누가 내 아버지가 되겠는가? 분명 아모리 사람은 아니다. 상황은 더 나쁠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

23) Origen, *Homilies*, 86-98. 설교집의 편집자인 쉵(Scheck)에 의하면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설교의 연대는 주후 239년과 242년 사이라고 생각된다(Scheck, “Introduction,” Origen, *Homilies*, 3).

에게 속해 있습니다”(요일 3:8).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으며”(요 8:44). 그러나 내가 착하게 되고 선한 행동 위에 서면,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마 9:2).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 주지 않았고”(겔 16:4).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갖 태어난 여자 아기의 이미지로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말은 교회의 모든 성도에 관한 말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작이 위의 말씀 같았다. 그런데 죄 많은 예루살렘의 자르지 않은 탯줄이란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나는 성경의 다른 곳을 본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함으로(고전 2:13) 예루살렘의 탯줄이 어떻게 안 잘라졌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욥기에 욥<sup>24</sup>)에 관한 말이 있다. “허리에서 나오는 저 역센 힘과 배<sup>25</sup>)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욥 40:16). 두말할 것 없이 욥은 악마, 사탄이다(계 12:4). 그의 힘은 물론 배꼽에 있다. 모든 악의 시작이 허리에 있기 때문이다. 남자를 대항할 때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여자를 대항할 때 그의 힘은 배꼽에 있다. 그렇다면 남자가 포피를 베어 내어 할례를 받듯이 여자는 탯줄을 잘라 내야 하는 것이다. 여자가 정숙하여 수치스러운 죄가 없을 때에는 그의 탯줄이 잘려 있는 것이다. 여자가 죄를 지을 때는 그의 탯줄이 끊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겔 16:4).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나를 소금으로 만드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 5:13). 내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을 믿으면(행 13:9 참조), 나는 소금으로 맛을 낸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골 4:6)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소금이 뿌려지는 것은 멋진 일이다. 소금으로 간이 쳐진 사람은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다. 소금기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뜻이다.

24)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베혜못’으로 번역되어 있다.

25) 오리게네스나 히에로니무스가 사용했을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는 이 단어가 ‘배꼽’으로 번역되어 있다.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 주지도 않았다”(겔 16:4). 중생한 영혼은 포대기에 싸이게 된다. 주 예수께서도 포대기에 싸여 계셨다(눅 2:7, 12). 그렇다면 거듭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다시 태어난 사람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한다(벧전 2:2). 그리고 속임수가 없는 그 젖을 사모하기 전에 이 사람은 먼저 소금이 뿌려져야 하고 포대기에 싸여야 한다.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겔 16:5).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쫓겨나 들판에 버려지지 않게 하소서!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왜 그랬을까?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겔 16:5). 태어난 첫 날 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이는 인간 본성의 부패함을 말한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옳지 못할 때, 우리는 태어난 첫 날 들판에 버려진다. 만약 거듭남의 세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우리는 태어난 바로 그날 버려진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매우 흔하다. “거듭남의 씻음”으로 씻음받았으면서도(딤후 3:5를 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다(눅 3:8). 이런 이들에 대해 성경은 말한다. “오 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겔 16:5).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겔 16:6).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바라보라. 너는 버려졌지만 나는 네게 다시 왔다. 네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네게로 나아간다.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겔 16:6).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나는 살인자들의 땅을 보고 있다. 피흘림과 살인이 있는 땅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말했다. ‘제발 살아라.’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겔 16:6-7). 네가 버려진 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피와 죄가 묻은 너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를 들의 풀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네가 크게 자랐다”(겔

16:7).

“네 가슴이 뚜렷하고”(겔 16:7). 지금까지 큰 죄악들이 있었지만, 네가 다시 아름다워졌고,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겔 16:8).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알레고리로 풀이하지 마라.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답해 보라. 예루살렘에게 가슴이 있고 탯줄이 있다. 그것이 잘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가 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sup>26)</sup>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겔 16:7).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은 것이다(롬 13:14; 골 3:12 참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겔 16:7-8).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오셨고 그가 죄를 지었음을 보셨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다시 돌아오신다. 또 한 번, 관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겔 16:8). 죄를 지었던 이들의 때가 오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불쌍한 예루살렘, 즉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찾아오신다.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겹옷 자락을 펴서”(겔 16:8).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수치를 덮어 주시는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꼭 붙들고자 하지 않았던 그 복을 꼭 붙들어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겔 16:8). 그렇게 많이 돌아오시고 많이 떠나가시고 많이 찾아오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그분은 여자와 “언약을 맺으신다.”

---

26) 이 부분은 오리게네스가 자신의 성경 해석 방법론인 알레고리적 읽기를 변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5. 평가와 결론

많은 이들이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실제로 맛보기도 전에 거부한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소위 오리게네스의 ‘영적’(spiritual)이라는 말을 ‘공상’, ‘허황의 유의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결코 지나치게 자유롭지 않다. 오리게네스의 해석에 본문의 역사성과 떨어진 듯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해석이 허황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읽으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의 영성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은 오늘날 목상집으로 편찬해도 될 정도다.

그럼에도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역사성이 특히 중요한 장르들(역사서, 예언서 등)을 해석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우리가 잠깐 본 에스겔 16장의 해석 구조를 보자. 첫째, 에스겔 16장은 표면적으로는 간통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이야기이다. 둘째, 에스겔 16장 자체가 알레고리이므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즉, 에스겔 16장 알레고리의 이면적 의미)은 예루살렘과 그 주민이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의미까지만 오면 현대의 기독교 독자는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을 위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스라엘/유다/예루살렘의 역사에서 오늘의 자신의 삶을 위한 교훈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즉, 세 번째 의미로서, 본문이 오늘 이곳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친절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성경 읽기는 본문의 의미를 독자의 시간과 장소에까지 ‘배달해 준다. 독자가 애써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본문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 ‘배송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리하지만, 어느 정도는 작위적이다. 과연 본문의 의미를 배달시켜도 괜찮은가? 본문의 의미가 독자의 상황에까지 아무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을까? 실제로 독자와 본문이 이런 식으로 만날 경우 위 두 번째 의미(16장의 본래의 이면적 의미, 즉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의미가 혹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독자가 만나는 의미는 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이다. 성경의 많은 본문이 역사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오리게네스 및 옛 교부들의 영적 해석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에게 도움과 도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우리 교회가 귀하게 간직해야 할 유산이자 보물이다.

### <주요어>

알레고리, 비유, 영적 해석, 오리게네스, 에스겔, 에스겔 16장

### <Key Words>

allegory, parable, spiritual interpretation, Origen, Ezekiel, Ezekiel 16

\* 접수일 2014년 2월 19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27일

## 참고문헌

-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53-74.
- 채승희, “초기 기독교의 성경 해석(2),” 『성서마당』 22 (2009, 가을), 89-102.
- 채승희, “초대교부들의 구약성경 이해,” 『구약논단』 13:2 (2007), 52-71.
-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Founded upon the Seventh Edition of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889.
- Bunyan, John, *The Pilgrim's Progress*, <http://www.gutenberg.org/files/131/131-h/131-h.htm> (2014년 2월 18일 접속).
- Darr, Katheryn Pfisterer, “Ezekiel's Justifications of God: Teaching Troubling Texts,” *JOT* 55 (1992), 97-117.
- Darr, Katheryn Pfisterer, “The Book of Ezekiel,” *The New Interpreter's Bible*, 6, Nashville: Abingdon, 1994, 1073-1607.
- Dijk-Hemmes, Fokkeli van, “The Metaphorization of Women in Prophetic Speech: An Analysis of Ezekiel 23,” *Vetus Testamentum* 43 (1993), 162-170.
- Frye, N., “Allegory,” Alex Preminge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12-15.
- Galambush, Julie, *Jerusalem in the Book of Ezekiel: The City as Yabweb's Wif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130, Atlanta, Ga.: Scholars, 1992.
- Grider, J. K., “Allegory,” Merrill C. Tenney, ed., and Moisés Silva, rev., *The Zondervan Encyclopedia of the Bible*, 5,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kindle edition).
- Joosten, Jan, “Prophetic Discourse and Popular Rhetoric in the Hebrew Bible,” 『Canon&Culture』 7:2 (2013), 43-60.
- Longman, Tremper III,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2.
- O'Keefe, John J., “Allegory,” John Anthony McGuckin, ed., *The Westminster Handbook to Origen*, Westminster Handbooks to Christian Theology,

-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4.
- Origen, *Homilies 1-14 on Ezekiel*, Thomas P. Scheck, trans., Ancient Christian Writers Series 62, New York: Newman, 2010.
- Parker, David C., "Hexapla of Orige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3, 188-189.
- Shields, Mary E., "Multiple Exposures: Body Rhetoric and Gender Characterization in Ezekiel 16,"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14 (1998), 5-18.
- Teskey, G., "Allegory,"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th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37-40.

<초록>

##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김동혁

(연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본 소고는 성경 해석에 있어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무엇이며, 그 공헌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성서학의 맥락 속에서 알레고리를 정의한다. 이때 알레고리와 연결점이 있는 다른 문학적 기법들도 살펴본다. 둘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대표하는 3세기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원리를 논의한다. 셋째, 에스겔이 말한 알레고리의 실례인 ‘부정한 아내 예루살렘’의 알레고리(겔 16장)의 일부를 간략히 살핀다. 넷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실례로서 에스겔 16장의 알레고리의 일부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해석을 요약한다. 결론 부분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공헌과 한계를 간략히 논의한다.

<Abstract>

**An Allegorical Reading of Ezekiel's Allegory:  
The Case of Origen's Interpretation of Ezekiel 16**

Dong-Hyuk Kim  
(Postdoctoral Fellow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 case study in attempting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allegorical reading of the Bible: what is allegorical reading in biblical hermeneutics, and what are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The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we define allegory in the context of biblical studies, while paying attention to its differences from other literary devices such as simile, metaphor, fable, parable, and typology. Second, as a representing figure of allegorical interpretation, we examine the principles of Origen's allegorical reading of the Bible. Third, as a biblical example, we look at a part of Ezekiel 16, which is the allegory of The Adulterous Wife Jerusalem. Fourth, as a case study, we survey Origen's interpretation of the part of the aforementioned allegory in Ezekiel 16. As a conclusion, we briefly discus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biblical texts.